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6일 목요일 음 8월 28일 (5물)

기상정보

흐리고 한때 비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흐려져 오후부터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20~21℃, 낮 최고 기온은 26~27℃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60%
20%	성 산	60%
20%	고 산	60%
20%	서귀포	60%

	해뜸 06:24 / 해짐 18:26	달뜸 03:01 / 달짐 17:03
물때	만조 08:32 / 21:19	간조 03:08 / 14:56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2/26℃
모레	흐리고 비	22/26℃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경고	보통

월드뉴스

美 트럼프, '우크라 의혹'에 탄핵 위기

하원의장, 조사 착수 발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2년 8개월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미국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내년 11월 대선을 13개월여 남겨둔 미 정국은 탄핵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내년 재선을 호언장담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칫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고, '패권국' 미국의 정치 불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높일 기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탄핵 추진은 외견상 외국 정상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결정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때 민주당 대선 주자 중 선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확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깊은 불신에다 기존 규율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분방한 특성, 줄곧 따라붙었던 도덕성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대선을 앞두고 '재선 성공'과 '정권 탈환'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벌어진 대선 전초전이라는 측면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마음가면을 쓰고 사는 사회

김 태 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면을 쓰고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한다. 가면을 씀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까지 사라지게 한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한다.

가면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사회는 문제가 많거나 외형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니고 있는 외형적 스펙(위장된 스펙까지)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방증이다. 그만큼 한 인간으로서의 진면목을 소홀하게 여기는 인간경시사회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외형 중시를 넘어 그 외형이 사회의 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형에 갇힌 사회를 가면사회라 하고 싶다. 수많은 가면들이 대학 입학과 회사 입사의 당락, 사회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면은 진짜 얼굴을 가리는 또 다른 얼굴이다. 이제는 얼굴이 아닌 마음을 가릴 때에도 사용한다. 마음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마음가면을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험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일까? 선글라스는 시력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 엉뚱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음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면 세상살이가 쉬워질지 모른다. 그러나 가면을 쓴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느끼는 감각을 점차 잃어가게 된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가면을 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마음가면을 쓰고 있는 한 결코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가면의 함정이다. 타인의 부족과 결핍은 여전히 잘 보이는데 마음가면을 쓴 자신의 마음은 볼 수 없다.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타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한없는 관용으로 대한다. 마음가면을 쓰면 일시적인 성취를 얻을지 모른다. 그러나 마음가면을 쓴 채로 오래 살다보면 종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고, 파멸의 길을 질주하게 된다.

마음가면을 쓴 무리의 사람들이 집단행동까지 하는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다. 마음가면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방관하는 사회는 마음가면을 쓴 개인의 미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우리의 영혼을 모두 물질에 빼앗겨 사는 바벨사회와 다르지 않다. 감각기관의 공통점은 감각 대상들에 대해 반드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우리의 의식도 예외가 아니다. 감관작용이나 심관작용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끌려 다니도록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호불호의 감정에 지배를 받으면 갈망과 혐오의 마음만 키우게 되어 고통과 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호불호의 감정을 달래려고 마음가면을 쓰는 세상을 살 것인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은 모두 우리의 몫이며, 우리가 선택한 사회에 살게 된다.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

열린마당

'책, 올레?'에 초대합니다

김 봉 석
제주시 우당도서관 열람팀장

바야흐로 책읽기 좋은 계절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인생의 자양분인 책을 읽는 것은 이 가을에 누릴 수 있는 소확행 중 하나일 것이다.

제주시 소속 공공도서관에서는 '책으로 가득한 섬 제주' 구현과 '책을 통해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자료 확보는 물론 '올해의 책 선포, 독서공감 북콘서트, 독서릴레이, 책 읽어주는 도서관, 책 읽는 버스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인문학 강좌, 독서마라톤대회'를 비롯해 책을 통해 소통하고 행복을 일구며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제주독서문화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2019 제주독서문화대전은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독서문화대전추진위원회가 주관해 이달 27~29일 3일간 우당도서관과 사라봉 공원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 제주독서문화대전은 '책, 올레?'를 주제로 '책 보레 올레?, 책 풀레 올레?, 책이랑 놀레 올레?, 책 맹글레 올레?, 책 수눌레 올레?' 다섯가지 테마로 책이 있는 공연·낭송, 학술·토론, 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했다.

아울러 제주어와 제주설화, 제주올레, 한라산총서 등 제주책을 주제로 한 '제주책관'을 설치해 다양한 제주 책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출판·도서관·서점·동네책방 등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도 준비돼 있다.

제주시 소속 공공도서관은 이번 독서문화대전이 책을 사랑하는 도민과 제주를 찾은 관광객 등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독서문화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가 대한민국 책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2019 제주독서문화대전에 초대한다.

청정 제주가 사라진다

조 재 석
제주시 노형동

자연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여행지에서 잠시 쉼표를 찍으며 머물다 가는 곳. 그 동안 답답했던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치유하고 제주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섬. 그 섬이 쓰레기와 오폐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도에 저가항공이 운항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인구와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넘쳐나는 쓰레기로 매립장과 소각처리장은 포화상태고 하수처리시설은 용량을 초과했다. 해안가에도 파도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로 가득하고 중산간, 오름 산책로 곳곳에도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으며 축산분뇨로 지하수 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가 터져 나와 지금 제주는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중앙언론에서도 제주도가 이미 쓰레기 섬으로 추락해 가고 있는 슬픈 모습을 보도했다. 제주도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섬이 아님을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인구가 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 당연히 쓰레기도 늘어난다.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정된 땅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도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관광객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가야 한다.

청정의 섬, 자연의 보물섬을 쓰레기 섬으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관광객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환경,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버려지는 쓰레기는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정 소식

구제역·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19.9.-20.2.)
-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및 해외 축산물 반입금지 -
○ 문의: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진단과(710-8532)

범죄예방 우수시설 안심원룸인증제 운영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원룸형 건물에 대해 범죄예방환경을 진단하고, 우수시설을 인증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스스로 방범체계 강화 및 건물의 안전 이미지 홍보 역할
□ 안심원룸인증제 세부내역
○ 인증대상: 도내 공동주택 및 원룸형 건물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대상에서 제외
○ 인증절차: 접수(e메일 또는 자치경찰단 방문) ⇒ 현장진단 ⇒ 인증여부 판단 ⇒ 인증 및 인증패 수여
□ 참여 접수 방법
○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http://www.jeju.go.kr/jmp/index.htm)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e메일(jhlee8401@korea.kr)로 전송하시거나 자치경찰단(제주시 기자길 7) 3층 생활질서팀 방문 접수
□ 기타 문의사항
자치경찰단 생활질서팀(064-710-8898)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10월 한라도서관 행사 안내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오정근 박사 초청 "북 드림 과학수다" 콘서트
○ 일 시 : 2019. 10. 19.(토) 14:00~ ○ 장 소 : 한라도서관 시청각실
○ 대 상 : 도민 100명(중학생 이상) - 접수일 : 10.10.(목) 09시~ 마감시까지
○ 내 용 : 중력의 시대, 우주의 기원을 밝히다
'10월의 하늘' 초청 과학 강연
○ 일 시 : 2019. 10. 26.(토) 14:00~ ○ 장 소 : 한라도서관 시청각실
○ 초청저자 - 이기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김정희 친절한마녀
○ 대 상 : 도민 100명(중학생 이상) - 접수일 : 10.10.(목) 09시~ 마감시까지
○ 내 용 - 2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특별한 방법 - 3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크리에이터, 놀면 뭐하니?
인문독서 아카데미 특강 운영
○ 일 시 : 2019. 10. 13.(일) 14:00~16:00 ○ 장 소 : 한라도서관 시청각실
○ 대 상 : 중학생 이상 100여명(홈피 및 전화 접수)
○ 내 용 - 세계 독립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독립
2019 한라도서관 『인문독서 아카데미』
○ 기 간 : 2019. 8. 22.~10. 24(매주목). 19:00~21:00
○ 장 소 : 한라도서관 강의실 ○ 대 상 : 고등학생 및 일반인 50명, (선착순 접수) ○ 강의내용: 호모 사피엔스의 인간학
그림책 속 쁘띠프랑스 스토리텔링
○ 일 시 : 2019. 10. 27.(일) 14시
○ 장 소 : 한라도서관 외국자료실 ○ 대 상 : 초등학생 20명
○ 강의내용: 프랑스 영어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
○ 신청 및 문의: 710-8647

서귀포시정 소식

2019 중문 야호 페스티벌 개최 알림
□ 행사일시 : 2019. 10. 4(금) ~ 10. 5(토) / 20:00~22:00
□ 행사장소 : 중문관광단지 플레이케이팝 앞 특설무대
□ 행사내용 : 초청가수 공연, 부대행사 등
□ 공연일정
- 10. 4(금) : 룰라, 김원준, DJ DokB
- 10. 5(토) : 김현철, 장재인, 오프레인
□ 관 람 료 : 무료
□ 행사문의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760-2654)

제2회 서복전시관 요가페스티벌 개최 알림
□ 행사일시 : 2019. 10. 5(토) 12:40~18:00 / 개막식 13:00
□ 행사장소 : 서복전시관 내 야외공원 ※우천시 효돈생활체육관
□ 행사주제 : 불로장생의 氣, 요가로 표현하다!
□ 행사내용 : 요가교육(하타요가, 프리메드 요가, 키즈 영어요가 등), 요가시연(마이링빈야사 요가, 아크로 요가 등), 요가 경연대회, 밴드 및 음악공연 등
※ 부대행사 : 불로차 체험, 체형상담, 어린이 체험행사 등
□ 행사문의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760-2501)

제4회 제주의귀 말 축제 알림
□ 행사일시 : 2019. 10. 5(토) ~ 10. 6(일)
□ 행사장소 : 서귀포시 남원읍 옷귀馬 테마타운
□ 행사주최 : 의귀리마을회,
□ 행사내용 : 헌마공신 김만일 퍼레이드 및 마당놀이, 밭 볼리기 공연, 김만일 삼행시 짓기, 체험 프로그램(어린이 승마, 빙떡 만들기 등) 등
□ 행사문의 :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마을회 (☎ 764-0185)